

스카즈(skaz) 내러티브 소설의 번역 문체 연구*

조성은(Seongeun Cho)

동국대

Seongeun Cho (2016), Korean Translation Styles of Skaz Narrative in the novel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of translating skaz narrative novels, which ignore their narrative genre. May(1994) contended that many English translations of Russian skaz novels showed the problem by using strategies such deleting and modifying some key words indicating that the novels are skaz.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ose are not only the problem of English translation of Russian skaz but also the one observed in Korean translations of skaz novel written in Englis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ovel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nd its nine Korean translations will show on what aspects Korean translations ignore. And by comparing the translations of each narrative device divided into Narrator's text and Character's text, translators' different strategies will be discussed. In addition, some phenomena caused by linguistic differences or language specificity will be discussed.* (Dongguk University, Korea)

Keywords: skaz narrative, narrative style, oral narrative, present tense, narrator, second-person narratee, pragmatic marker, dialect

1. 서론

스카즈(skaz) 내러티브란 소설의 서술(narration)에 있어 서술자(narrator)가 구술(oral) 발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향해, 마치 면대면(face-to-face) 상황에서의 청자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술 서술 특성을 지니는 장르 소설의 번역을 두고 메이(May 1994)는 원천 텍스트(ST) 내 구술성(orality)이 번역을 통해 상당수 삭제되거나 변형됨으로써 목표 텍스트(TT)가 원천 텍스트와 같은 내러티브 장르를 유지하지 못하는 번역 현상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서도 발견된다. 메이는 러시아어 스카즈 소설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비판하였지만, 영어로 쓰인 스카즈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서도 스카즈 내러티브임을 나타내는 주요 구어체 요소가 번역

* 본 논문은 2015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을 통하면서 주로 ‘삭제’되거나 문어체로 변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결국, 번역 텍스트에서는 해당 소설이 ‘스카즈’라는 내러티브 장르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메이(May 1994)는 이를 두고, ‘번역을 통한 내러티브 장르의 변화’의 문제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인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과 그의 완역본 아홉 권을 선정하여 주요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 네 개 언어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ST내에서 스카즈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네 개 내러티브 장치(narrative device)는 ‘현재 시제’, ‘이인칭 피서술자’, ‘화용 표지’, ‘방언’으로 슈미트(Schmid 2010)가 제시한 스카즈의 문체적 특성에 해당되는 소설 내 주요 언어 요소이다. 서술자는 서술지문에 이와 같은 내러티브 장치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이 소설이 스카즈임을 나타낸다. 그를 통해 메이의 주장이 영어 스카즈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임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을 다시 서술자의 텍스트(narrator’s text)와 등장인물의 텍스트(character’s text)로 구분하여 번역을 비교하였다. 위의 네 개 내러티브 장치는 NT(narrator’s text)에 사용되어 ‘스카즈’라는 내러티브 장르로서의 문체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일반 소설에서는 주로 CT(character’s text)에 사용되어 말하는 이의 성격, 감정뿐 아니라 출신배경, 교육배경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언어 요소에 대한 NT와 CT간 번역 분석은 메이의 주장이 한국어 번역본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임과 동시에, 번역가의 NT와 CT간 다른 번역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를 통해,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새로운 번역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로 스카즈 내러티브의 문체적 특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와 스카즈 내러티브와 관련한 번역 선행 연구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네 개의 내러티브 장치의 스카즈 내러티브로서의 문체적 특성과의 관련성 및 ST내에서 사용된 예를 중심으로 각 번역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NT와 CT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장은 결론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스카즈 내러티브의 문체적 특성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문체적 특성은 ‘구술 서술(oral narration)’을 중심으로 한다. “구어 지향 발화(orientation toward oral speech)”(Eihenbaum 1918; Millar 2004: 1400에서 재인용), “직접 발화(direct speech)”(Burak 2010: 455), “구술성

(orality)”(Fludernik 1993: 232), “실제 발화의 음성(phonetic), 문법(grammatical), 그리고 어휘(lexical)적 패턴을 모방(emulate)하고 구술 서술(oral narration)의 환상을 자아내는”(Ehrlich 1955: 206; Maziarczyk 2006에서 재인용)등의 수식어는 모두 스카즈 내러티브의 문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두는 서술의 중심, 즉 서술자(narrator)와 서술자 개인의 발화 습관을 ‘구어’의 범위 내에서 찾고 있다. ‘구어체 서술’을 특징으로 하는 스카즈 내러티브는 일인칭 서술자에 의한 이인칭 피서술자, 즉 텍스트 밖 독자의 텍스트 세계로의 초대가 더해져, 텍스트 안의 서술자와 텍스트 밖 독자간 대화 상황을 만듦으로써, 그와 같은 구어체 서술의 특성을 한층 강화시킨다. (Fludernik 1993)

이와 같은 스카즈의 문체적 특성을 구분 및 정리한 학자로는 비노그라도프(Vinogradov 1925), 바흐진(Bakhtin 1929), 그리고 슈미트(Schmid 2010)가 대표적인데, 그 중 슈미트는 서술자 개인 인물 중심의 스카즈를 작가의 유려한 말솜씨가 두드러지는 스카즈와 구분하여 ‘인물화 스카즈(characterizing skaz)’라 칭하고, 일곱 가지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일곱 가지 스카즈의 특성으로 먼저, 소설 서술의 중심이 ‘서술자’임을 강조하는 ‘서술자성(narratoriality)’, 따라서 서술자의 출생, 교육 등의 배경으로 제한되는 ‘제한적 지적 지평’의 특성, 이와 같은 서술자가 유려한 말솜씨의 저자와는 구분되나, 저자의 개입 흔적이 서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중음성(double voicedness)’, 그리고 문어와는 구분되는 특정 개인의 구술 발화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술성(orality)’, 서술방식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특성의 ‘즉흥성(spontaneity)’, 서술자의 교육적 배경 등을 알려주는 비문법적 언어나 속어 사용 등의 ‘통속성(colloquialism)’,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밖의 청자를 서술 속으로 끌어들이 ‘대화 상황’을 연출하는 ‘대화성(dialogism)’ 이 그것이다.

2.2.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번역 관련 선행연구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번역 문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메이(May 1994), 뷰락(Burak 2010), 그리고 조의연·조성은(2013)이 있다. 메이(May 1994)는 러시아어로 쓰인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영어 번역문을 중심으로 한 시대, 문화, 그리고 국가간 관계 등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텍스트 외적 요소로, 그리고 번역가의 스카즈 내러티브 특성에 대한 간과의 문제를 텍스트 내적 요소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서술 지문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개인 발화적 특성, 특히 구어체 요소들이 삭제되거나 표준어, 문어체로 번역됨으로써 원문에서의 서술 지문에 나타나는 내러티브적 특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한다. 뷰락(Burak 2010)은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의 5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에 따른 번역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연스러운 읽힘보다는 원문의 특성을 살린,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원문의 문체를 전달하고자 한 번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조의연·조성은(2013)

에서는 미국의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인 *The Catcher in the Rye*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ST에서 나타나는 스카즈 내러티브로서의 구술성 요소 중 독자를 향한 직접 발화로서의 특성을 잘 살린 번역은 반말형의 문장 종결어미를 사용한 번역임을 한국어의 종결어미 종류별 문법적 특성 고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스카즈 내러티브의 번역 관련 선행 연구들은 모두 원문의 내러티브적 특성에 주목한다. 그 외에,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인 현재 시제, 이인칭 피서술자, 화용 표지, 방언 등에 대한 번역 연구 역시 원문에서 해당 요소들이 지니는 문체적 효과를 중심으로 번역을 분석하고, 원문의 언어와 번역어 간의 차이에 따라 등가어 부재, 등가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고 역설한다 (Brett 2009, Hellberg 2013, Morini 2006). 특정 언어 요소를 중심으로 한 ‘등가어’를 원문에서의 해당 요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연구도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분석

본 연구는 트웨인(1885)의 미국 소설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이 소설은 1884년 영국,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에서 첫 출판된 이후 한동안은 방언, 비속어 등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국립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되는 등 문학 작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헤밍웨이의 극찬 이후, 특유의 문체적 특성으로 인해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술자는 14세의 허클베리(Huckleberry)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배경을 나타내는 비문법적 표현과 지역 방언을 시각 사투리(eye-dialect)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서술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현재의 자신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며, 이인칭 대명사인 ‘you’를 통해 텍스트 밖 독자를 ‘듣는 이’로 설정하고 있다. Puffin Books의 2008년 출판분을 원천 텍스트로, 번역본으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자가 서점,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완역본인 김병철(1997), 태혜숙(1999), 현준민(2003), 전봉룡(2007), 박중서(2011), 이덕형(2012), 윤교찬(2013), 김육동(2013), 백낙승(2013) 등의 아홉 권을 목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표1.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의 비교 대상 번역본

분류	번역자	출판 년도	출판사
TT1	김병철	1997	범우사
TT2	태혜숙	1999	중명
TT3	현준만	2003	미래사
TT4	진봉룡	2007	신원문화사
TT5	박중서	2011	현대문학
TT6	이덕형	2012	문예출판사
TT7	윤교찬	2013	열린책들
TT8	김옥동	2013	민음사
TT9	백낙승	2013	임프린트 펍컨클래식 코리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소설 속 서술 지문 내 스카즈 장치로는 첫째, 현재 시제를 사용한 점이다. 서술자는 분명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대화 상황을 만들곤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둘째, 이인칭 피서술자(narratee)의 사용이다. 일인칭인 ‘나(I)’로 자신을 지칭하면서 ‘너(You)’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서술자(narrator)의 대화 상대를 등장시킨다. 셋째, 저자인 트웨인(Twain)의 글썽치 흔적이라기보다 14세 청소년의 말투임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용 표지(pragmatic marker)의 사용이다. 이는 서술자의 이야기를 더욱 즉흥적인 개인의 이야기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서술 내용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 등을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넷째, 소설 속 배경이 되는 미국 남부 사투리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시각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서술자인 허클베리 뿐 아니라 극 중 다양한 인물마다 각 인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개 언어요소는 소설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임을 알게 해주는 내러티브 장치(narrative device)로,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개 내러티브 장치를 중심으로 번역을 살펴보았다. 비교 분석은 ST에서의 해당 요소들의 TT에서의 스카즈 내러티브로서의 문체적 측면에서의 비교뿐 아니라, NT와 CT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NT는 narrator’s text로 서술 지문을 가리키는 말이며, CT는 character’s text로 등장인물의 대화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비교는 해당 언어요소들이 일반 소설에서 CT에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번역에서 NT와는 다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1. 현재 시제

이 소설의 서술 지문에 사용되는 현재 시제 동사는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 이야기하다가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심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서술자가 ‘현재’ 독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독자는 ‘지금’ 서술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구술성’ 및 ‘대화성’ 요소에 해당된다. 서술 지문에서의 이 같은 현

재 시제의 번역 양상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예문 1)에서와 같이 아홉 개 번역본 중 단 세 개 번역본만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여섯 개 번역본은 모두 선어말어미인 ‘-쓰’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시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1)

ST: Niggers is always talking about witches in the dark by the kitchen fire.(10)

TT1: 김둥이들은 부엌 난로 옆의 어둠 속에서 늘 마녀 얘기를 하는 것인데,

TT2: 김둥이들은 부엌불 옆 어둠 속에서 마녀들의 이야기를 하곤 했다.

TT3: 김둥이들은 부엌 불 옆 어둠 속에서 마녀들의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TT4: 김둥이들은 부엌의 난로 옆에 모여 앉아 곧잘 마녀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TT5: 김둥이들은 밤이면 부엌 아궁이 옆에 모여 앉아 마녀 이야기를 했다.

TT6: 김둥이들은 부엌 난로 옆 어둠 속에서 늘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TT7: 이들은 어둑어둑할 때 부엌문 옆에 앉아 마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TT8: 김둥이들은 부엌 난로 옆 어둠 속에서 늘 마녀 얘기를 합니다.

TT9: 김둥이들은 어둑한 부엌 난롯불 옆에서 늘 마녀 얘길 했지만,

같은 경우, CT에서는 이와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 예문은 등장인물의 발화가 직접 인용된 경우로, 지금 현재 발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keeps, don't), 해당 발화 내용이 과거임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had). 하지만 NT인 예문 1과는 달리, 모든 문장에서 원문의 시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2)

ST: “The place where he keeps his wives. Don't you know about the harem? Solomon had one; he had about a million wives.”(121)

TT1: “마누라를 두는 데지 뭐야. 짐, 너는 아직 후궁이 뭔지 몰라? 솔로몬 왕도 하나 있었는데, 마누라가 백만 명이나 있었어.”

TT2: 『왕의 마누라들이 사는 데 말이야. 후궁이라는 말 처음 들어? 솔로몬 왕도 후궁 하나에다 마누라를 백 명 정도 거느렸대』

TT3: “왕의 마누라들이 사는 데 말이야. 후궁이란 말 처음 듣니? 솔로몬 왕도 후궁이 하나 있었는데, 마누라를 백 명 정도 거느렸단구.”

TT4: “마누라들을 넣어 두는 데지 너 후궁도 모르니? 솔로몬도 있었어. 그놈은 마누라가 백만 명이나 있었어.”

TT5: “왕이 자기 마누라들을 두는 데야. 하렘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솔로몬도 그런 걸 하나 봤을 거야. 그 양반은 마누라가 백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

TT6: “자기 마누라들을 보관하는 곳이야. 후궁에 대해서 몰라? 솔로몬 왕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백만 명이나 봤어.”

TT7: 「자기 부인들을 모아 두는 곳이야. 넌 후궁도 몰라? 솔로몬 왕도 후궁이 있었어. 부인이 백만 명이나 되는데.」

TT8: 「자기 마누라들을 된두는 데 말야. 짐은 아직 후궁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솔로몬

왕도 하나 있었는데, 마누라가 백만 명이나 되었어

TT9: “자기 마누라들을 두는 데야. 아직 후궁이 뭔지 모르는 거야? 솔로몬 왕에게도 있었는데, 거기다 마누라를 100만 명쯤 두었어.”

3.2. 이인칭 대명사

이인칭 대명사는 일인칭 서술자인 ‘나(I)’가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면서 독자를 ‘너(you)’로 지칭하는 것으로 서술자(narrator)의 상대 개념으로 서술 지문(narration)상에서는 피서술자(narratee)로 불린다. 일반 소설에서는 지문보다는 대화(CT)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인칭 대명사는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대화 상대로, 스카즈 고유의 ‘대화성’을 나타내는 내러티브 장치로 볼 수 있다. 먼저, 서술 지문에서의 이인칭 대명사의 번역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와 같이 이인칭 피서술자의 언급을 통한 대화 상황 연출이 영어에서와 같은 ‘대명사’가 아닌, 서술어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예문에서 서술자는 이인칭 대명사인 ‘you’를 사용하여 텍스트 밖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예문 3)

ST: You don't know about me, without you have read a book by the name of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but that ain't no matter.(1)

이 문장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T1, TT2, TT3, TT5, TT6, TT7은 ‘-다’체를 사용한 반면, TT4와 TT9는 ‘-아야’, 그리고 TT8은 ‘-버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국어 종결어미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살펴볼 때, 화자에 의한 청자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면 TT1, TT2, TT3, TT5, TT6, TT7은 ‘청자 불포함’으로, TT4, TT8, TT9는 ‘청자 포함’으로 나뉜다.

TT1: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알 길이 없겠지만 그런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TT2: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테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TT3: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를 테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TT4: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나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TT5: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만약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다.

TT6: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나에 대해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다.

TT7: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으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TT8: 『툼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나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TT9: 『툼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나를 잘 모르겠지만, 그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야.

소설의 지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종결어미인 ‘-다’를 사용한 경우가 TT1, TT2, TT3, TT5, TT6, TT7, 그리고 반말체 종결어미를 사용한 경우가 TT4와 TT9, 경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한 경우가 TT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번역본의 기본 종결어미 형태 분류

기본 종결어미 형태	번역본
‘-다’	TT1, TT2, TT3, TT5, TT6, TT7
‘-야’, ‘-야’	TT4, TT9
‘-습니다’	TT8

주목할 점은, 한국어의 서술어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역할 뿐 아니라, 듣는 이에 대한 격식성 등급, 문장의 종류(평서문, 의문문 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자의 포함 여부로 구분할 때, TT1, TT2, TT3, TT5, TT6, TT7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ST에서 서술자가 언급하는 이인칭 피서술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반말체인 ‘-야’와 ‘-야’를 사용한 TT4, TT9와 ‘-습니다’를 사용한 TT8은 이와 같은 이인칭 피서술자를 포함하는 발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만, 반말과 존대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각 종결어미는 소설 지문에서 격식성 및 청자 포함 여부 측면에서 동일한 종류의 종결어미로 첫 문장부터 소설의 끝까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you’를 사용하지 않은 원문보다 스카즈로서의 ‘대화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같은 경우의 CT를 살펴보면,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화자는 대화 상대를 가리켜 ‘you’라 지칭하며 이야기한다).

(예문 4)

ST: “Why, blame it all, we’ve got to do it. Don’t I tell you it’s in the books? Do you want to go to doing different from what’s in the books, and get things all muddled up?”(13)

이의 번역을 살펴보면, NT에서와는 달리 모든 번역에서 대화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해당 발화가 청자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원문에서의 ‘you’의

1) 이때의 ‘you’는 서술자(narrator)의 상대 개념인 피서술자(narratee)가 아닌, 일인칭 화자의 대화 상대인 이인칭 청자로, 명칭은 다르나 각각 대화자의 ‘청자’라는 점에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재를 번역본에서도 나타내고자 한 시도가 엿보인다.

- TT1: “에이 귀찮아, 해야만 한다니까. 내 책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짓을 해서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 TT2: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아? 하면 되지. 책에 써 있다고 했잖아. 책대로 안 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 TT3: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책에 써 있다고 했잖아. 책대로 안 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
- TT4: “시끄러워! 어쨌든 하는 거야.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말야.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일을 망치려드는 거야?”
- TT5: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들 한대.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구.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
- TT6: “젠장,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 책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책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행동하다 모든 일을 망치고 싫어?”
- TT7: 『궁시렁대지 마.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책에 쓰여 있다고 했잖아. 책 내용과 다른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칠 작정이니?』
- TT8: 『에이 빌어먹을. 그렇게 해야만 한다니까 그러네. 책에 나와 있다고 내 그러지 않든?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짓을 해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겠다는 거야?』
- TT9: “아니 빌어먹을, 우린 그렇게 해야 해.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 책에 있는 대로 안 하고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려는 거야?”

이와 같이, 이 소설의 두 번째 내러티브 장치인 이인칭 대명사의 번역에 있어, NT와 CT 모두 한국어의 서술어 종결어미를 통해 ‘대화성’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아홉 개 번역 본 중 CT는 모두 대화체 종결어미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NT에서는 단 세 개 번역본에서만 대화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3.3. 화용 표지

이 소설이 스카즈 내러티브임을 나타내는 세 번째 장치는 화용 표지(pragmatic markers)이다.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허클베리는 화용 표지로 문장을 시작함으로써 청자이자 독자의 관심을 자신의 이야기로 끌고자 하거나, 바로 이어질 발화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앞의 발화 내용과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등, 즉흥적으로 발화 내용의 전환을 꾀하기도 한다.

(예문 5)

Well, pretty soon the old man was up and around again, and then he went for Judge Thatcher in the courts to make him give up that money, and he went for me, too, for not stopping school.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36)

그런데 아버지는 이내 일어나 이리저리 어슬렁대다가, 새처 판사한테 덤벼들어 그 돈을 포기하도록 법에 호소하겠다고 으러대고,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나한테도 겁을 주었지. (백낙승 번역, 47)

허클베리는 ‘you see’, ‘now’ 등과 함께 ‘well’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잦은 화제 전환뿐 아니라,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등, 구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발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스카즈의 문체적 특성 중 ‘구술성’, ‘대화성’, ‘즉흥성’, ‘통속성’을 나타내는 내러티브 장치라 할 수 있다.

화용 표지 ‘well’을 중심으로 번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된 경우, 앞 문장과의 접속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접속부사로 번역된 경우, 그리고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화용 표지로 번역된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은 화용 표지인 ‘well’로 발화를 시작하면서, 발화의 즉흥성을 나타내고 있다. 번역을 살펴보면, TT2와 TT7에서는 ‘삭제’되었고, TT1과 TT8은 접속부사인 ‘그래서’와 ‘그런데’로 번역되어 앞 문장과의 연결 관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서술자의 서술 태도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TT5에서는 한국어의 화용 표지로 분류되는 ‘하여간’으로 번역되었다. 이 경우, 원문에서 화용 표지의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6)

ST: Well, Judge Thatcher he took it and put it out at interest, and it fetched us a dollar a day apiece all the year round—more than a body could tell what to do with. (1-2)

TT2: 대처 판사가 이 돈을 맡아 이자놀이를 하여,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1달러씩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데 사실 말이지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TT7: 대처 판사가 이 돈에 이자를 붙여 우리에게 일 년 내내 매일 1달러씩 주었는데, 이 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큰 금액이었다.

TT1: 그래서 대처 판사가 그걸 맡아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남에게 놓아주어, 우리 수중에는 1년 내내 매일 1달러씩 굴러들어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할 바를 모를 정도의 돈이었다.

TT8: 그런데 새처 판사 나라가 그 돈을 대신 맡아가지고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만도 일년 내내 날마다 1달러씩 굴러들어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였지요.

TT5: 하여간 새처 판사, 그 양반이 그 돈을 가져다가 이자놀이를 했고, 덕분에 우리는 각자 하루에 1달러씩을, 그것도 1년 내내 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용 표지 ‘well’이 포함된 문장 10개를 뽑아 번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된 경우가 전체의 52%, 접속부사로 번역된 경우가 23%, TL의 화용표지로 번역된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이 역시 CT에서의 번역을 살펴보면, ‘옳지, 알았다’, ‘두고 보자구’, ‘좋아!’, ‘그렇담 좋아’, ‘아’, ‘옳지’, ‘자’ 등과 같이 형태는 서로 다르나 TL

의 화용 표지로 번역된 경우가 아홉 권 중 여덟 권에서 발견되었다.

(예문 7)

ST: “Say, who is you? Whar is you? Dog my cats ef I didn’ hear sumf ’n. Well, I know what I’s gwyne to do: I’s gwyne to set down here and listen tell I hears it agin.”(8)

TT1: “어이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쫓, 확실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옳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기 주저앉아서 다시 한 번 그 소릴 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을걸, 정말.”

TT2: 『누구여? 어디 있는겨?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두고 보자군. 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난 여기 이러구 있을 거구먼.』

TT3: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좋아! 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TT4: “이봐, 넌 누구지? 어디 있어? 난 틀림없이 소리를 들었던 말이야. 그렇담 좋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여기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말 테다.”

TT5: “아, 누구인 거야? 어디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듣지도 않고 괜히 이러는 거면, 내가 개놈의 고양이다. 안, 그럼 어쩔 수 없지. 고양이 소리가 또 날 때까지 내 여기 앉아 있을 거니까.”

TT6: “여봐, 누구여? 어디 있는냐고? 내 분명 무슨 소릴 들긴 들었는데. 이럴 짝에 워터 키 할지 나도 안다 이거여. 여기 그대로 앉아 그 소리가 다시 들리 때까지 귀를 열어놓고 있는다 이거여.”

TT7: 「이봐! 저 누구여? 뉘냐니까? 분명 소리가 났는다. 좋아, 두고 봐. 소리 날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 있을께.」

TT8: 「어이 누구냐께? 어디 있는 거여?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났는데 말이여. 옳지, 어떻게 할건지 알았지라우. 이렇게 하면 되겠제. 내 여기 주저앉아서 다시 한번 그 소릴 들을 때거정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구먼」

TT9: “말해, 누구야? 어딴여? 내가 무슨 소릴 못 들으면 개자식이다. 자,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여기 죽치고 앉아 그 소릴 다시 들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이와 같이 화용 표지의 번역에 있어서도 NT와 CT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방언

네 번째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인 ‘방언’은 일반 문학 작품에서 발화자의 지역 또는 역사적 배경을 담아 그 인물의 발화에 사실성을 더해주는 도구(Berthele 2000)로서 사용된다.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에서는 서술자인 허클베리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미국 남부라는 지역적 설정에 맞는 방언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서술자 개인의 발화 습관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서술자성’을 나

타내는 장치이다.

서술자인 허클베리가 사용하는 방언의 대표적인 예가 아래 예문과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인데, ‘구어체’의 효과를 내기 위한 대화체 종결어미 사용(TT4, TT8, TT9)이나 구어체 표현 첨가(TT5) 외에 원문에서의 효과 전달에 적극적인 번역은 없었다.

(예문 8)

ST: I see it warn't no use wasting words—you can't learn a nigger to argue. So I quit.
(125)

TT1: 이 이상 더 얘길 해봐도 소용없다고 나는 깨달았다. 검둥이에게 토론을 가르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는 단념했다.

TT2: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둥이에게 토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두기로 했다.

TT3: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둥이에게 토론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두기로 했다.

TT4: 나는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으리라는 걸 알았어. 검둥이에게는 토론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만뒀지.

TT5: 나는 더 이상 입 아프게 떠들지 않기로 했다. 검둥이한테는 논쟁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난 포기했다.

TT6: 더 말을 낭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둥이에게 논쟁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기권했다.

TT7: 나는 더 이상 말 가지고 씨름하는 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검둥이에게 논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기에, 나는 여기서 접기로 했다.

TT8: 더 이상 얘기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 검둥이에게 토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 귀에다 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만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TT9: 그 이상 얘길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난 깨달았어. 검둥이한테 토론하는 법을 가르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만두었지.

같은 경우, 서술자의 서술(narrator's text)이 아닌, 대화(character's text)의 번역을 살펴보면, 위에서와 같이 구어체로의 번역을 한 경우(TT1, TT2, TT3, TT4, TT5, TT6, TT7, TT9) 외에도 TL의 방언으로의 번역을 한 경우(TT8)도 나타났다.

(예문 9)

ST: “Well, if that's the way I'm agreed, but I don't take no stock in it. Mighty soon we'll have the cave so cluttered up with women, and fellows waiting to be ransomed, that there won't be no place for the robbers. But go ahead, I ain't got nothing to say.”(14-15)

TT1: “응, 그래. 그게 규칙이라면 나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어쩔지 그다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당장에 동굴이 여자와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놈들로 가득 차버려 강도들

을 가둬 둘 장소가 없어질 게 아냐. 그래도 좋아, 하고픈 대로 맘대로 해. 난 아무 할 말도 없으니까.”

TT2: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지만, 글썬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놈들하고 여자들 때문에 이 동굴이 꼭 차버릴 게 아냐. 그러면 우리가 지낼 곳도 없을 테고 말이야. 하지만 좋을 대로 하라구. 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TT3: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지만, 글썬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여자들하고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놈들 때문에 이 동굴이 꼭 차버릴 게 아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지? 하지만 좋아! 좋을 대로 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TT4: “뭐, 그렇게 된다면야 나도 싫지는 않지만, 그건 그다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야. 그러다가는 동굴 안이 여자들과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놈들로 꼭 차서 우리가 비집고 앉을 틈도 없겠다. 하지만 뭐 괜찮아. 나는 별로 할말이 없어.”

TT5: “글썬, 원칙이 그렇다면야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걸. 만약 이 동굴에다가 여자들을 잔뜩 데려다놓고, 그 옆에는 단 놈들이 몸값 치르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강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야. 뭐, 일단 그냥 넘어가자. 더 이상은 할 말도 없으니까.”

TT6: “그래?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야. 하지만 난 좀 짹짹. 곧 동굴은 여자들과 몸값 치르고 풀려날 친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강도들은 들어설 자리도 없게 되겠군. 하지만 그대로 해. 난 할 말이 없으니까.”

TT7: 「좋아, 정말 그렇다면 네 말을 따르지. 하지만 별로 믿고 싶진 않아. 머지않아 동굴이 여자와 몸값을 내려고 기다리는 자들로 꼭 찰 거고 그러면 우리들이 있을 곳도 없어지게 될거야. 하지만 알았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TT8: 「뭐, 그렇다면야 나도 굳이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어쩐지 그다지 믿어지지 않는 단. 얼마 가지 않아 동굴이 여자와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놈들로 가득 차버려 강도들이 들어설 자리도 없게 될 게 아니겠어.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 내사 이제 아무 할 말도 없으니까.」

TT9: “글썬, 그렇다면야 좋겠지만, 믿어지질 않네. 얼마 안 가서 동굴은 여자들과 몸값 받고 풀어줄 놈들로 꼭 차서 우리 강도들이 비집고 들어설 틈도 없을 거야. 그렇긴 하지만 어서 얘길 계속해 봐, 난 할 말이 없으니.”

ST에서의 방언이 TT에서는 표준어로 번역됨으로써 원문에서의 효과는 사라졌고, 이 역시 NT와CT가 차이를 보였는데, 표준어와 구어체로의 번역으로 구분되는 NT보다는 훨씬 다양한 범위인 구어체, 지역 방언 또는 시각 방언으로의 번역 시도가 발견되었다.

3.5. 분석 결과

스카즈 소설인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의 네 개 내러티브 장치인 현재 시제, 이인칭 대명사, 화용 표지, 방언을 중심으로 번역을 분석한 결과, 메이의 지적

에서와 같은 삭제, 변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시제의 경우,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인 ‘-쓰’ 또는 ‘-엇’을 사용하여 시제에 변환이 일어난 경우가 전체 분석 대상의 21%로 조사되었다. 이인칭 대명사의 경우, 아홉 개 중 여섯 개 번역본이 화자에 의해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종결어미인 ‘-다’를 선택함으로써 ST에서 이인칭 피서술자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대화성’은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단 세 개 번역본만이 ‘-아/야’, ‘-버니다’ 등의 대화체 종결어미 사용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화용 표지의 경우 전체 분석 대상의 52.5%가 ‘삭제’되어 원문에서의 효과를 전달하지 못했다. 방언의 경우 역시 아홉 권 중 여섯 권의 번역본이 문어체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서의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메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요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스카즈’라는 내러티브 장르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요소들의 NT 번역을 CT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CT에서는 ST에서의 현재시제는 한국어의 현재 시제 동사로, 이인칭 대명사로 표현된 화자의 대화 상대는 대화체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화용 표지의 경우는 한국어의 화용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ST에서의 서술자의 발화 습관이나 감정 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지역 방언 역시 NT에서와는 달리 한국 내 특정지역의 방언 또는 시각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ST에서의 효과를 살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2는 각 내러티브 장치의 NT와 CT간 번역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각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의 지문(NT)과 대화(CT)간 번역 차이

	NT	CT
현재 시제	TL의 과거시제로	TL의 현재시제로
이인칭 대명사	‘-다’ 종결어미	대화체 종결어미
화용 표지	삭제	TL의 화용 표지로
지역 방언	TL의 문어체로	TL의 구어체 또는 특정지역 방언, 시각 방언으로

이와 같은 차이는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의 NT 내 네 개 내러티브 장치에 대한 번역 역시 CT에서와 같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시제는 TL의 현재 시제 동사로, 이인칭 피서술자는 대화체 종결어미를 통해, 화용 표지는 TL의 화용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지역방언 역시 특정 지역의 방언이나 번역가가 창조한 시각 방언으로의 번역을 통해서이다.

4. 결론

스카즈 내러티브 소설인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의 한국어 완역본 아홉 권을 원문에서의 스카즈 내러티브 장치인 현재 시제, 이인칭 피서술자, 화용 표지, 그리고 방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메이의 주장과 일치하는 번역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T에서의 동일 요소에 대한 번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NT에 서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원문의 효과 전달을 위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카즈’라는 내러티브 장르의 번역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번역 연구 역시 그와 같은 문체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번역가의 문체 연구 등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Aijmer, K. (2004). Pragmatic Markers in Spoken Interlanguage,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3(1): 173-190.
- Brett, D. (2009). Eye Dialect: Translating the Untranslatable, *Lost in Translation* 6: 49-62.
- Buxbaum, K. (1927). Mark Twain and American Dialect, *American Speech* 2(5): 233-236.
- Carkeet, D. (1979). The Dialects in *Huckleberry Finn*, *American Literature* 51(3): 315-332.
- Cho, E. & Cho, S. (2013). An Analysis of three types of sentence-endings in *skaz* narrative Korean translations: The Case of *The Catcher in the Rye*. *Translation Studies* 14(4): 141-162.
- Fludemik, M. (1991). The historical present tense yet again: Tense switching and narrative dynamics in oral and quasi-oral storytelling, *Text* 11(3): 365-397.
- Fraser, B. (1996).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6(2): 167-190.
- González, M. (2004). *Pragmatic Markers in Oral Narrative: The case of English and Catalan*. Amsterdam: John Benjamins.
- Hellberg, E. (2013). Translating pragmatic markers: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Prog.* 1-28.
- Jahn, M. 2001. Narrative voice and Agency in Drama: Aspects of a Narratology of Drama, *New Literary History* 32: 659-679.
- Mackenzie, C. (1993). The *skaz* narrative mode in short stories by W. C. Scully, Percy FitzPatrick, Perceval Gibbon and Herman Charles Bosman. *Literator* 14(3): 1-20.
- May, R. (1994). *The Translator in the Text*.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O'Mara, M. (2007). Translating Colloquial Idioms/Metaphors in *The Catcher in the Rye*: A Comparison of Metaphorical Meaning Retention in the Spanish and Catalan Texts,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35: 57-75.
- Phelan, J. (1994). Present Tense Narration, Mimesis, the Narrative Norm, and the Positioning of the Reader in *Waiting for the Barbarians*, in Phelan, James & Rabinowitz, Peter(eds.), *Understanding Narrative*,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Schmid, W. (2010). *Narratology: An Introduction* (Alexander Starritt, Trans.), Berlin & New York: De Gruyter.

This paper was received on 26 April 2016; received in revised form on 18 May 2016; and accepted on 20 May 2016.

Author's e-mail address

cholyou@nate.com

About the author

Seongeun Cho completed her Ph.D. at Dongguk in 2015(Translatio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narrative and narrative theory.